

목포시 고향사랑기부 3년만에 모금액 20억원 달성

올해 7억3800여만원 매년 증가세
기부자 중심 정책 참여 기반 넓혀

목포시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3년만에 시민과 향우들의 꾸준한 지원과 참여에 힘입어 지난 16일 기준 누적 모금액 20억원을 달성했다.

목포시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5억6700여만원, 지난해에는 6억9400여만원을 모금했다. 올해 현재 7억3800여만원을 기록하며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시는 누적 모금 성과의 배경으로 ▲기부자 우대 정책 추진 ▲다양한 분야와 계층을 아우르는 기금 사업 발굴 ▲답례품 공급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품질관리 강화를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올해는 민간 기부 플랫폼을 도입해 기부 절차의 편의성을 높이고 시즌별 이벤트 운영과 추가 혜택 제공 등 '기부자 중심' 정책을 적극 확대하며 참여 기반을 넓혀왔다.



목포시 관계자들이 고향사랑기부제 20억원 달성을 기념해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목포시 제공>

시는 내년 ▲고향 부모님 '병원동행' 안심케어 ▲여성폭력 피해자 따뜻한 보금자리 조성 ▲행복발상 만민동락(萬民同樂) 운영 ▲임신부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 ▲잠전유공자 나라사랑 장수 방한 모듬 ▲유기동물 입양 꾸러미 지원 ▲자립준비청년 교육비 지원 등 총 7개 기금사업을 추진할 계

획이다. 이를 통해 복지·보건·보훈·반려동물·청년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을 확대하고 기부자의 뜻을 지역 변화로 연결해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시는 기부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매년 답례품 선호도 조사와 공급업체 현장검증,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답례품 품질 관리에도 힘써 왔다.

현재 총 63개 업체, 93개 제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흥어, 낙지젓갈, 목포사랑상품권, 삼채고등어, 손질갈치, 조기, 조미김, 국산 참기름, 목감비세트, 한우세트, 해상케이블카 탑승권 등이 인기 품목으로 꼽힌다.

목포시 관계자는 "목포를 사랑해 주신 모든 분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누적 20억원이라는 값진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라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목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영화로 만나는 진도 이야기
'결혼해줄래' 내년 상반기 개봉



'결혼해줄래' 홍보 포스터.

진도를 배경으로 한 영화 '결혼해줄래'가 제작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에 개봉한다.

'결혼해줄래'는 진도의 풍광을 배경으로 학력과 사회적 조건에 따른 한 여성의 지난한 삶과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배우 문경이 분한 영화 속 주인공 '수연'은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 진도로 돌아와 타인의 삶과 아픔을 마주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해 나간다.

장완복 감독이 연출을 맡고 배우 문경(수연)과 이상현(준호), 박재관(동식), 원주연(선희), 황지원(유라) 등이 출연해 우정과 지역공동체의 따뜻한 관계를 그려낸다.

영화에는 진도의 농특산물을 대표하는 지역 공동 상표 '진도온(JindoON)'이 등장한다. '진도온(JindoON)'은 언제나 밝게 불을 밝히는 상태를 의미하며, 활력 넘치고 건강한 진도의 농산물을 상징하는 인증 상표다.

또 ▲진도대파크림빵 ▲진도전복 ▲진도홍주 ▲진도개 ▲신비의 바닷길 ▲세방낙조 등 대표 관광 자원이 등장해 진도의 매력을 자연스럽게 소개한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영암군, 베트남 농산물 수출 확대 나섰다

다낭시와 판로 확대 업무협약

우호교류 협력 강화 실무협의로도

영암군이 베트남에서 국제 교류협력 확대와 지역 농산물 수출 판로 확보에 나섰다.

영암군은 최근 베트남 다낭시 하이반구인민위원회와 '우호교류 협력 강화 실무협약'을 진행하고 하노이 유통기업 THD와 '농·식품 가공 및 유통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우승희 군수를 포함한 방문단은 지난 8월 '한국-베트남 페스티벌 초청', 9월 '마한축제 다낭시 문화예술단 초청' 등으로 다져온 영암과 다낭시 인연을 실무협의로 확대하기 위해 방문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부이 투 투이 THD 대표가 영암을 방문해 배, 대봉감, 쌀 등 지역 농산물을 베트남 현지에서 가공·판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방문단은 다낭시청을 찾아 호광부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예방하고 부이 투 투이 THD 대표

와 만나 유통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다낭시 관할 하이반구인민위원회를 방문해 응우옌 푹 중 인민위원장 등과 우호도시 실무협약을 진행하고 농업 계절근로자 파견, 2026년 왕인 박사축제 초청, 계절근로자 협업 등 안건을 논의했다.

현지 코트죽 공동체 타랑-잔비마을, 다낭시 문화체육관광국, 참조각박물관, 전통예술공연장 등도 방문해 양 도시의 문화·공예·예술·체육 교류 전반기를 놓고 소통했다. <사진>

영암군은 협약에 따라 내년 3월 왕인문화축제 기간 우호도시 교류협약식을 체결한다.

지역 특산품인 배를 시작으로 가공·판매 실무진 협의로도 진행한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이번 베트남 방문으로 다낭시, THD와 농업과 문화 관광을 아우르는 미래지향적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영암 농특산물 해외 판로 확대, 다낭시와 공존 번영하는 교류의 모범을 세우겠다"라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서울~제주 고속철도 국가균형발전 핵심사업”

국회서 고속철도 유치 토론회

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촉구

해남과 완도를 경유하는 서울-제주 고속철도 유치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17일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제주 고속철도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사진>

해남·완도·진도 지역구 박지원 국회의원을 비롯해 민홍철, 민병덕, 민형배, 허종식, 손명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해남군과 완도군, 대중교통포럼이 공동 주관했다.

박지원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은 국가균형발전과 전남 서남권 교통 편의의 개선을 위한 핵심 국가사업"이라며 "해남과 완도를 경유하는 철도노선은 지역 경제와 관광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김시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박재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단장, 윤태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안중배 제주세계미래발전포럼 회장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27조 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다. 제주국제공항은 매년 1500여건의 항공기 결항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대체할 새로운 교통망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막대한 비용과 제주도의 반대 등으로 국가계획에 포함되지 못한 상황이다.

해남군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앞두고 지난해부터 고속철도 유치를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한국교통연구원 등 관계기관을 수차례 방문하며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오고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민형배 해남군수는 "서울-제주 간 고속철도는 해남과 완도의 교통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발전을 견인할 것"이라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은 그 첫걸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인구 줄고 자가용차 증가

영광군, 택시 23대 줄인다

영광군이 급격한 인구 감소와 자가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택시업계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차량 감차를 추진한다.

영광군은 지난 1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제5차 택시 감차 위원회를 열고 연도별 감차 규모와 감차 보상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감차 대수는 현재 등록 택시 115대(개인 76대, 법인 39대) 중 23대를 5년간 단계별로 감차를 진행한다.

감차 보상비는 물가 상승과 타 지자체 사례를 반영해 영광을 개인택시 기준으로 4차 대비 13.8% 인상했다.

이번 조치로 업계의 자율적인 감차 참여를 유도하고 감차 목표 달성과 함께 양도 양수를 통한 민원 해결, 고령 운전자 교체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효과도 기대된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

광주문화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광주문화신협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